Global Strategy

# 인도–유럽연합 FTA 체결, 무역망 다변화 정책 점검

EM Strategist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Global & AM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대외 리스크(관세, 제재, 환율) 확대에 흔들리는 인도 증시
- 인도–EU FTA 체결로 인도 수출 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
- 무역망 다변화의 중장기적 효과에 주목, 증시 반등 시점으로 판단

## 인도 NIFTY 지수, 대외 정책 불확실성에 연초 이후 하락 장세 지속

- NIFTY 지수는 연초 이후 –3.7% 하락하며 주요 신흥국 증시(중국 +4.3%, 대만 +11.6%, 한국 +20.7%, 브라질 +12.9%, 멕시코 +7.1%)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1.27일 기준). 12.5일 인도준비은행(RBI) 기준금리 인하(5.50% → 5.25%)에도 불구하고, 1)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 및 무역 협정 지연, 2)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국제 제재 확대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3) 루피화 사상 최저치 경신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이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미국 의존도 감소와 제조업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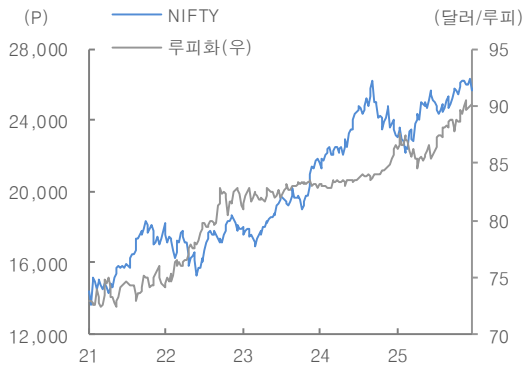
-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27일 인도–EU FTA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교역 품목의 96% 이상에 대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며, 인도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110% → 10%) 및 연간 25만대(내연기관 16만대, 전기차 9만대)의 관세 우대 쿼터를 설정했다. 한편 EU는 1) 화학제품, 섬유, 보석 등에 대한 관세 철폐,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혜국 대우 보장, 3) EU 내 144개 부문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4) 입국 및 취업 허가에 관한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 인도–EU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축소하고 'Make in India' 정책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IMF에 따르면 '25.1~9월 인도의 EU향 수출은 371.7억 달러(14.2%)로 미국(16.0%)에 이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 관세 면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며 핵심 쟁점이던 CBAM 최혜국 대우 확보로 수출 불확실성도 완화됐다. 반면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하했으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제한적 협상에 성공했다. 2025년 기준 인도 자동차 시장의 유럽계 기업(볼보, 르노, 벤츠 등)의 점유율은 약 4%로, 연간 440만대 시장 규모를 감안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쿼터는 기존 점유 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협정 타결에 따른 단기적 수혜보다 중장기 통상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주목

- 다만 인도–EU FTA가 경제 전반에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제시 아그라왈 상공부 차관도 5~6개월의 법률 검토와 연내 시행을 전망했다. 실제로 1.17일 타결된 EU–남미공동시장 FTA의 경우 프랑스와 폴란드 농업계의 반발로 보류될 우려가 높아졌다. 유럽의회는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해당 FTA 법안을 회부, 통상적으로 18~24개월이 소요되는 법원 심리 기간 동안 승인 및 비준이 지연될 전망이다.
-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인도의 무역망 다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후 7.24일 영국과 CETA, 10.1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TEPA, 12.8일 오만과 CEPA, 12.22일 뉴질랜드와 FTA를 연이어 체결했다. 인도–EU FTA에 따른 양방향 투자 촉진과 미국 의존도 축소가 맞물리며, 주요 신흥국 대비 부진했던 인도 증시의 반등 시점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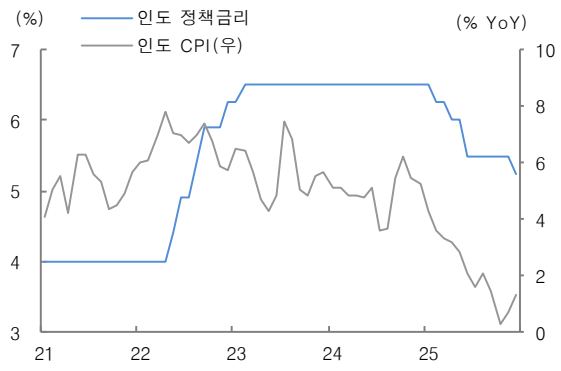
*[인도 ETF] 미국(INDA): iShares MSCI India ETF / 한국(A453810): KODEX 인도Nifty50

## 그림 1. 인도 NIFTY 지수와 루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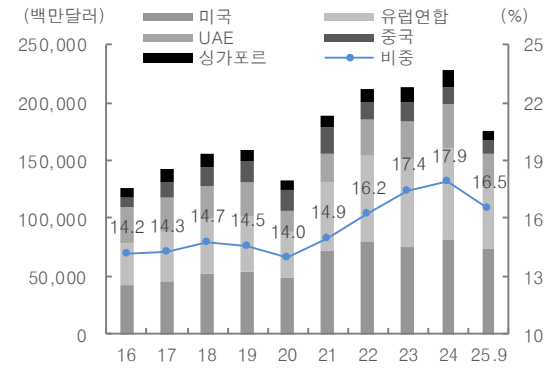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그림 2. 인도 정책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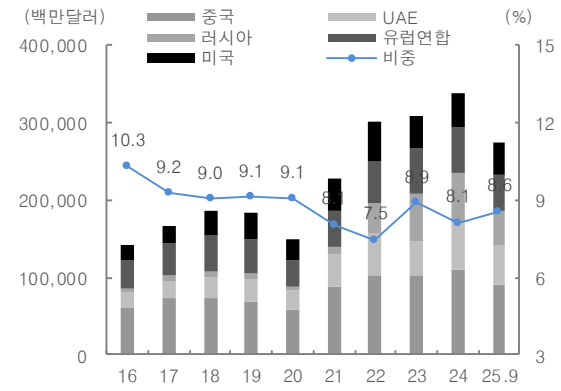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그림 3. 인도 권역별 수출액 및 EU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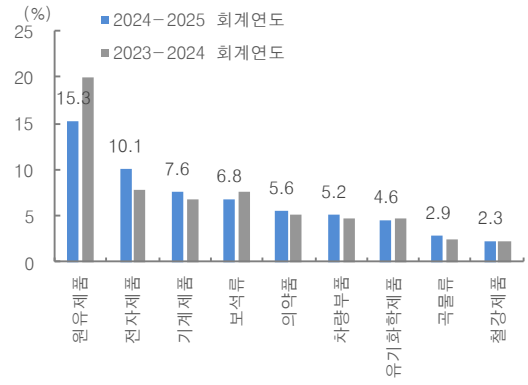

자료: IM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그림 4. 인도 권역별 수입액 및 EU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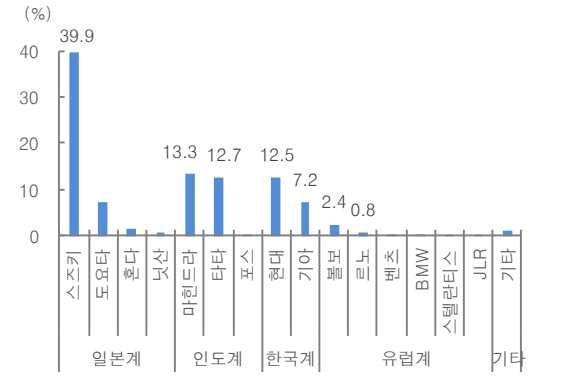

자료: IM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그림 5. 인도 주요 상품별 수출 비중




자료: 인도 상공부(MOC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그림 6. 인도 자동차 시장 기업별 점유율




자료: 인도자동차딜러협회(FAD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1.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이후 인도 무역 정책(25.4월 이후)**

| 날짜 | 무역 정책 |
|---|---|
| '25년 4월 2일 |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행정 명령 서명. 전세계에 대한 10% 보편 관세 부과 발표(4월 5일) |
| 4월 3일 | 트럼프 행정부, 전세계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4월 9일) |
| 4월 5일 | 트럼프 행정부, 전세계에 대한 10% 보편 관세 부과 발효 |
| 5월 5일 | 인도–뉴질랜드 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5월 9일) |
| 5월 20일 | 인도–미국 1차 무역협상(~5월 22일) |
| 6월 4일 | 인도–미국 2차 무역협상(~6월 10일) |
| 7월 24일 | 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 |
| 7월 14일 | 인도–뉴질랜드 2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7월 25일) |
| 8월 6일 | 트럼프 행정부, 인도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25% → 50%)(8월 27일) |
| 8월 7일 |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발효 |
| 8월 20일 | 인도–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협정서 서명 |
| 8월 27일 | 인도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발효 |
| 9월 10일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를 통한 협력 언급 |
| 9월 15일 | 인도–뉴질랜드 3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9월 19일) |
| 9월 22일 |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미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br>인도–미국 양자 무역 협정(BTA) 논의 진행(~9월 24일) |
| 10월 1일 | 인도–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무역경제동반자협정(TEPA) 발효 |
| 10월 26일 | 인도–아세안 상품 자유무역협정(AITIGA) 개정 논의 |
| 10월 28일 |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br>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행 |
| 11월 3일 |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부 장관과 사빈 웨이안드 EU 무역 사무총장,<br>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행(~11월 7일) |
| | 인도–뉴질랜드 4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11월 8일) |
| 12월 4일 | 인도–러시아 23차 연례 정상회담 |
| 12월 8일 | 인도–뉴질랜드 5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12월 12일) |
| 12월 18일 | 인도–오만 포괄적경제파트너십협정(CEPA) 체결 |
| 12월 22일 | 인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 '26년 1월 8일 |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br>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행(~1월 9일) |
| 1월 13일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지 선언 |
| 1월 25일 |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br>16차 인도–EU 정상회담(~1월 27일) |
| 1월 27일 | 인도–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발표 |

자료: 언론종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글로벌전략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